시·군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 발표

전북교육청, 교육력 상승 견인 위해 작년 첫 평가 진행
최우수교육지원청에 익산 · 진안, 우수에 군산 등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 시 · 군 교육지원청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과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된 시 · 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 시 · 군 교육지원청 평가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력신장 △수업혁신 △기초학력 책임제 △디지털 수업역량 제고 등 9개 영역 18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지역특색사업 또는 학교지원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지역(6)과 군지역(8)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교육지원청은 익산 · 진안 △우수교육지원청은 군산 · 김제 · 고창 · 순창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교육청에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시상식은 17일 오후 3시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14개 시 · 군교육지원청은 수업공개 나눔 활성화, 학력신장 지원 강화,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난독 · 경계선 학생 교육 지원,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등의 주요 평가지표를 모두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하지만 학교업무 경감을 목표로 하는 공문서 감축 평가지표는 아쉽게도 모든 교육지원청이 통과하지 못해 2025년 해결해야 할 행정 혁신 과제로 남았다.

우수사례로는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의 적기 해소 내용에 관한 '익산 학력신장 JUMP-UP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역특화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의 내용을 담은 '미래를 선도하는 고창 스마트스쿨&미래교실 체험 대축제-에듀테크가 ON-多'가 꼽혔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처음 실시한 평가임에도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근소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 및 주요 교 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평가를 통해 국가시책 사업을 포함한 교육정책 추진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물품전시회 참여 신청하세요"

전북교육청, 26일까지 신청접수… 4월 18일 개최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물품전시회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3년부터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는 4월 18일 열린다.

교육기관의 수요가 많은 시설자재, 교육물품 등을 생산하는 도내 업체 80여 개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메인화면의 알림 배너를 클릭해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오는 26일까지 이메일(jbeco@jbedu.kr), 팩스(220-9426),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4층 재무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4개 시 · 군청, 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2B(학교장터)에 전북교육장터 운영, 지역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도내 우수 제조업체들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판로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학의 변화 · 혁신 이끈다

전북대, 2기 집행부 꾸려… 부총장 · 처장 · 부처장 등 임명

JBNU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제19대 양오봉 총장 2기 보직교수 임명식.

전북대학교가 제19대 양오봉 총장과 함께 대학발전을 이끌 제2기 부총장 및 처장급 집행부를 꾸렸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2기 집행부를 구성, 교수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처장급 등 보직자를 확정하고 이날 JBNU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식에서 양 총장은 2기 보직교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전북대 혁신을 함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직교수를 대표해 이동헌 교학부총장이 청렴한 공직문화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청렴선서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교학부총장에 이동헌 교수(화학과), 연구부총장에 이존화 교수(수의학과), 대외협력부총장에 윤명숙 교수(사회복지학과)가 각각 임명됐다. 대학원장에는 김성민 교수(생물산업기계공학과)가 임명됐다.

이어 처장급에서는 교무처장에 오상욱 교수(생물교육), 학생처장에 조동휴 교수(의학과), 기획처장에 국경수 교수(전기공학과), 대학원혁신 · 연구처장에 김희선 교수(간호학과), 입학처장에 안정용 교수(통계학과), 국제처장에 조화림 교수(프랑스아프리카학과), 교육혁신처장에 심재우 교수(영어교육과), 정보혁신처장에 김순태 교수(소프트웨어공학과), 사무국장에 강정석 교수(심리학과), 산학협력단에 손정민 교수(자원 · 에너지공학)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부처장급에는 교무학사부처장에 김태환 교수(양자시스템공학과), 학생지원부처장에 유창호 교수(IT융합기전공학), 기획조정부처장에 정창규 교수(전자재료공학), 재정기획부처장이 노산하 교수(경제학부), 대학원혁신 · 연구처 대학원혁신부처장에 김정곤 교수(화학과), 대학원혁신 · 연구처 연구진흥부처장이 이승법 교수(국제이공학부), 입학부처장에 김진규 교수(의학과), 언어교육부처장이 김정수 교수(중어중문학과), 산학협력부단장에 박재병 교수(전자공학부), 연구지원부단장에 박삼복 교수(회계학과), 홍보실장에 이정환 교수(생명과학과), 국제협력부처장에 박천웅 교수(사회학과), 교육혁신부처장에 김종성 교수(교육혁신부), 미래교육부처장에 신유정 교수(과학학과), 정보혁신부처장에 박현찬 교수(컴퓨터인공지능학부), 발전지원부장에 박진호 교수(수의학과), 캠퍼스디자인실장에 장태일 교수(지역건설공학과), 연구윤리감사실장에 박수영 교수(법학과)가 각각 임명됐다.

양오봉 총장은 "새롭게 모신 보직교수님들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전북대학교를 미래로 이끌어 갈 적임자들로,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통해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전북대가 '학생 중심, 지역 상생,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더 큰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I · 실세계 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 정밀의료 논의

전북대 난치성 호흡기질환 치료제 개발연구소
오늘 첫 심포지엄 마련… 연구 사례들 소개

전북대학교 난치성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소(소장 이용철)가 AI와 실세계 데이터(RWD)를 활용해 신약개발과 정밀의료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첫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18일 오후 2시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TTRC: RWD & AI-enabled Drug Development Symposium'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AI와 RWD의 결합을 통해 진행된 연구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는 난치성 호흡기 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RWD는 장기적 치료 효과와 개별 환자의 치료 반응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희귀질환 관리와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호흡기 질환은 환자마다 치료 반응과 질병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RWD에 기반한 AI 분석이 정밀의료 실현에 필수적이다.

심포지엄에는 코어라인소프트의 장령우 연구원, 서울아산병원 김남국 교수, 카이스트 김우연 교수, 전북대 Hilal Tayara 교수, 전북대학교병원 정재석 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AI 기반 폐 영상 분석, Real-World Evidence(RWE) 기반의 의료 AI 적용 사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약설계, 기도질환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자 검체 연구 등 다양한 최신 연구와 임상 적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철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정밀의료 및 AI 기반 신약 개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 담론을 제시하는 첫 시작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소규모 유치원 유아교육 여건 개선 지원

한울타리유치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이달 중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규모 유치원의 유아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한울타리유치원 사업과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유아 학습권 보호에 총력을 펼친다.

먼저,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은 중심유치원 1곳과 협력 유치원 2~3곳이 체험학습, 교육활동, 행사 등을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2개팀, 6개원을 선정해 행 · 재정적 지원을 한다. 지원된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 · 외부 환경 조성 및 리모델링,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로 활용된다.

또한 컨설팅, 모니터링,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작은 유치원 간의 협력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 활동, 특색있는 행사 등을 통해 유아의 놀권리를 보호하고, 교사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공모를 통해 총 5개팀, 15개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전북의 모든 유아들에게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만족감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JST 공유대학 미래수송기기 아이디어 해커톤 경진대회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이교우)는 지난 12~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JST 공유대학 미래수송기기 아이디어 해커톤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수송기기 산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대회에는 도내 대학생 및 지역 청년 35명이 참가해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실제 지역 산업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발굴을 넘어 실제 지역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대회 후에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육성 지원 나섰다

지역 연구원 등과 협약 체결
지역 상생 글로컬 사업 본격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글로컬대학30 성공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육성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 정읍 지역에 펫 · 바이오와 동물의약품 분야의 집중 육성에 힘쓰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육성 지원에 본격 나섰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우진비앤지㈜, 미라클스코프㈜, ㈜디바바이오, ㈜진셀바이오텍, ㈜유틸렉스, 아미코젠㈜ 등과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주요 대표자 및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주요 과제인 'JUIC Triangle' 구상의 하나로, 대학과 산업 간 경계를 허물어 익산 · 정읍의 동물의약품 클러스터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참여 기관들은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의 기업지원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기술 개발과 창업 및 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통한 전주기 인재 양성과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원일(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이 기업지원관 입주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김종훈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장이 기업지원관에 입주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대학과 기업이 함께 기반을 마련했다"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연구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전북TP, 스마트팩토리 핵심인재 양성 박차

국립군산대학교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핵심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팩토리 채용연계 공유전공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운영하는 스마트팩토리 채용연계 공유전공은 전북-삼성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팩토리 관리 인재 양성을 위해 개발한 교육과정이다.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스마트팩토리 모듈형 융복합 학사학위 과정(MCD: Modular Convergence Degree)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스마트팩토리 MCD과정은 국립군산대학교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모듈형 전공교육과정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교과과정을 소단위 모듈로 구성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